



광남일보



日 강제징용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모란장’
윤 정권 무산 뒤 3년 만...동구 요양병원서 수훈
6

광주김치, 강남 입맛 사로잡는다
현대백화점 본점서 팝업스토어
7

무더위 날릴 장성 콘텐츠 ‘홍행 예감’
7~8일 무궁화 장성대축제 등 다채
8

“길었던 공백만큼 팀 승리에 기여할 것”
KIA 김도영, 햄스트링 부상 후 67일만에 복귀
12

조간 제789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음력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통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창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장, 뒷줄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한 충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홍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경기 대구시장 권한 대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산·국가정책, 지방에 더 많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하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성장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예산과 인센티브의 방향도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등을 건의하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두 단체장은 군사시설 이전, 수해 복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전 관련 사안까지 빠짐없이 제시하며

이 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서 지방중심 재편 약속
강기정 시장, AI 2단계 예타 면제·도심 군사시설 이전 요구
김영록 지사,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등 건의

지역 핵심 현안을 국가 전략과 직결된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분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눌 실행해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

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율러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총동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 ESS ‘전기 저수지’ 핵심지 부상

전남이 정부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 1차 공모에서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확보하며, ‘전기저수지’ 국가전략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 1일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ESS 구축 1차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전기를 수요보다 많이 생산했을 때 우선 충전해뒀다가 전기 수요가 높은 시기에 공급하는 대규모 전력조절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선정된 8개 지역 가운데 7곳이 전남에 집중되며, 총 523MW, 나머지 1곳은 제주(40MW)에 배정됐다.

전남지역 선정지는 고흥(96MW), 황금(96MW), 안좌(96MW), 영광(80MW), 무안햇빛(80MW), 진도(48MW), 읍동(27MW) 변전소 등 7곳(523MW)이며, 각 지역 변전소 인근에 2026년까지 ESS 설비가 구축된다.

당초 정부는 540MW 규모의 ESS를



LG에너지솔루션 전력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남은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한 분산형 전력 모델 실증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힌다. 실제로 전남이 전체 사업자의 87%를 차지한 이번 결과는,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와 입지 여건, 수용성에서 타 지역을 압도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선정된 8개 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ESS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 15년간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력의 충·방전을 수행하게 된다. ESS는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1차 사업지 8곳 중 7곳 선정…내년까지 523MW 규모 구축 삼성SDI 참가 컨소시엄 76% 확보…10월 사업지 2차 모집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별 용량 확대를 허용하면서 최종 확정 규모는 563MW로 상향됐다.

전체 사업 물량 중 약 76%는 삼성SDI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확보했다. 나머지 24%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차지했다. 특히 삼성SDI는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은 삼원계(NCA) 배터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격 평가 항목 중 산업·경제 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생산라인과 국내 공급망(SCM)을 기반으로 한 국내 산업 기여도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ESS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로, 정부는 이를 ‘전기저수지’에 비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인 전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향후 RE100 산업단지, 수소산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차 사업자 모집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 구조와 평가 기준은 이번 1차와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남은 기존 인프라와 선정 효과를 기반으로 후속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되어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전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전까지 ESS를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지난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직 수락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뿔뿔

정청래,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 당선 전대서 61.74% 득표…박찬대 38.26%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첫 여당 대표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8·2 전당원대회에서 정 의원이 3선의 박찬대 의원을 누르

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 최종 61.74%를 얻어 38.26%를 얻는 데 그친 박 의원을 제쳤다.

궐위된 최고위원에 단독 출마한 초선

황명선 의원은 권리당원들로부터 과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당초 예정됐던 순회경선일정을 바꿔 호남·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이날 함께 공개했다.

집권여당의 수장이 된 정 신임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이자 당원 주권시대를 열망하는 당원들의 승리”라며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성모 기자 sole235@gwangnam.co.kr

광주 살아? 이 앱 #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